

# ‘소득세·법인세 급감’에 세수 부족 현실화...정부, 재추계 하나

## 국세수입, 전년 대비 24조 감소...세수 결손 확실시 “지출구조조정·세제 정상화해야...안 되면 국채 발행”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고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는 내부적인 재추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5~6월에 세수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긴급 지출 구조조정이나 세수 정상화 등으로 부족한 세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결국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더라도 적자 국채발행할 수밖에 없다. 4월 30일 기획재정부 발표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소득

세다.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20.1%) 감소했는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21.9%) 적게 걷혀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가격 하락, 수출 부진의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법인세 예산이 105조원인데 예산 편성 시점보다 우리 경제가 더 빨리 둔화되기 시작했다. 수출 성장세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105조원 법인세 전망치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부가가치세(16조5000억원)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5조6000억원(-25.4%)

감소했고, 교통세(2조6000억원)는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6000억원(-19.1%) 줄었다. 정부는 올해 걷을 세금을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3월까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세수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세출의 기반이 되는 세입이 부족하면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거나 지출 구조 조정 혹은 재정 집행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부족하면 최후의 수단인 적자 국채 발행, 추가경정예산 편성밖에 방법이 없다. 기재부는 내부적인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이나 추경을 위한 재추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 국장은 “올해 세수 현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이지만, 결과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 추경을 위한 재추계는 절대 아니다.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며 현재로서는 주어진 예산을 잘 쓰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중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 계획에 선을 그으며 “기금 여유자금이나 세계잉여금을 세입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집행 상황도 봐야 한다.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우선 대응할 수 있는 자금집행을 먼저 대응하고, 도저히 여의치 않으면 국회에 상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해 부족분을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아직 연간 전체 세수 추계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부른 국채발행은 이자율을 높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비상 지출 구조 조정과 일부 인하하고 있는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현재의 상황은 기업의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며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은 지출 구조 조정인데, 이것 만으로는 쉽지 않을 테니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게 맞다. 무리해서 세수를 확보하려 하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장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채발행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진다. 외화를 빌릴 때 이자율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이를 갚아야 한다. 결국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 들이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채발행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정부가 비상 지출 사업 조정을 통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일부를 감축해서라도 1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지출 감축으로 세수 결손의 절반 이상을 보충하고, 유류세 등의 세제를 정상화·합리화해 최대한 세입을 보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환기자



**코로나 팬데믹 끝나도 계속되는 밀키트 인기**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인 밀키트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89.5%는 밀키트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85.5%는 앞으로도 밀키트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은 4월 30일 오전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밀키트.

## 광주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 기대

광주시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3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상황이나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 지원요건을 완화 또는 지원수준을 상향하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다. 광주시는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국비 15억 원·시비 5억 원)을 확보,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뿌리산업 종사자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한 뿌리내림공제 ▲취업으로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뿌리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중년 노동시장 재진입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직종 특화훈련 등이다. 뿌리내림공제는 공제가입 연령제한을 해제하고, 기업부담금을 광주시가 대납하는 등 지원요건을 확대 추진한다. 신규 근로자가 1년 동안 200만 원을 적립하면 1년 만기때 지원금 400만 원을 더해 6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뿌리기업이 만 35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자리도약 장려금으로 1인 월 60만 원 씩 연간 72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등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선욱기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은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미취업자 신규채용때 지원금액을 1인 월 100만 원 씩 연간 1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뿌리산업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종 특화훈련을 통해 훈련수당·구직활동비·취업장려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과 참여자는 5월 2일부터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선욱기자

## 한전·가스공 부채 폭증에 공공기관 부채비율 175%

### 기재부 347개 공공기관 2022년도 경영정보 공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기업의 부채가 폭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75%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47개 공공기관의 2022년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부채 670조원 기록...한전·가스공 사채 발행 증가 영향 전체 347개 기관 중 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4개 기관의 지난해 자산은 1055조원이었다. 부채는 670조원, 당기순손실 1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174.3%로 전년대비 22.5%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이에 2022년 1월부터 한전·가스공사의 사채발행이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다.

한전 사채발행 규모는 2021년 10조5000억원, 2022년 31조8000억원에 달했다. 가스공사는 2021년 4000억원, 2022년 1조5000억원으로 불었다. 한전과 가스공사를 제외하면 부채비율은 2021년 130.0%에서 2022년 128.0%로 전년 대비 2.0%p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 기관에 대해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24조원) 및 자본 확충(10조원)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1분기 총정원 9000명 줄어든 43만6000명...작년 복리후생비 2.6% ↑ 올해 1분기 총 정원은 43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9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혁신계획 이행에 따른 조정 등이 반영된 것이다. 1분기까지 347개 기관 정원은 1만721명 감축 조정됐다.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은 약 1000명 증가했다. 최이슬기자

기재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 어려움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총 2만5000명이었다.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를 보면 청년은 2.5%p 오른 84.6%, 여성은 3.6%p 오른 51.4%, 장애인 0.2%p 오른 2.9%, 이천지역 인제는 0.2%p 오른 8.6%, 비수도권 인제는 3.0%p 오른 63.2%를 기록했다. 지난해 복리후생비 총액은 정원 증가 및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지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6% 증가한 8675억원이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과 유사한 규모였다. 주요 항목별로는 체육대회,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행사지원비가 325억원에서 369억원으로 13.6% 늘었다. 문화여가비는 468억원에서 497억원으로 6.3% 늘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공시 정보를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이슬기자



## CU, '백종원 제대로 한 줄 김밥' 출시

편의점 CU가 5월부터 백종원 줄김밥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내놓는다고 30일 밝혔다. CU는 1일 '백종원 우삼겹 한줄 김밥(2900원)'을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특제 소스를 발라 구워낸 우삼겹에 대파구이, 당근, 계란, 마요네즈로 속을 채운 상품이다. 백종원 우삼겹 한줄김밥은 다음달 31일 대규모 할인에 적용된다. 정상 판매가 2900원에서 구독쿠폰 적용 시 판매가의 20%인 580원을

할인하며, 통신사 할인 및 카카오페이가 결제 시 각각 200원, 500원이 적용돼 최종 162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CU의 자사브랜드(PB) 생수인 헤이루 미네랄워터(600ml)가 증정된다. 오는 16일에는 '백종원 비빔밥 한줄 김밥(2900원)' 출시가 예정돼 있으며, 우삼겹 한줄 김밥과 동일한 할인 프로모션 및 증정 행사가 적용된다. 이슬비기자